



<http://education.jnu.ac.kr>

합격 선배들이 전하는
교사임용
합 2026 **격**
노 하 **우**

 전남대학교사범대학



합격 선배들이 전하는
교사임용
합 2026 **격**
노 하 우

CONTENTS

사범대학장 인사말	04
가정교육과 / 초수 합격은 누구나 할 수 있다!	06
물리교육과 / 노베이스로 시작했지만 1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29
수학교육과 / 초수와 엽실론만큼 가까워지자	44
생물교육과 / 하루하루 주어진 복습을 해나간다는 것	51
역사교육과 / 불안을 지우는 기계적 반복	59
유아교육과 / 천천히 쌓아 올린 시간	76
윤리교육과 / 졸업시험 3트의 초수합격	84
음악교육과 / 괜찮아, 잘 될 거야	96
지리교육과 / 꾸준히 하다보면, 합격하더라	103
지리교육과 / 지리 합격 후기	107
지리교육과 / 매일 이게 맞나 싶겠지만 맞습니다	111
지리교육과 / “합격이 제일 재밌음”	118
지리교육과 / 잘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해서!	131
지리교육과 /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붙는다	141
체육교육과 / 임용 초수 합격 유 캔 두잇!	149
화학교육과 / 초수합격 후기	162
유아특수교육전공 / 미흡하지만 정리해본 임용 준비 과정	169
중등특수교육전공 / 너도 할 수 있어, 초수 합격	175
초등특수교육전공 / 임용고시, 초수에 끝내자	187



사범대학장 인사말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장

강구섭

임용시험 합격 수기집 발간을 축하하며

‘2026 교사임용 합격 노하우’에는 2026학년도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19명이 동일한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에게 전하고 싶은 생생한 경험이 담겨있습니다. 임용시험 준비에 필요한 내용뿐 아니라 사범대생의 대학 생활 전반에서 필요한 많은 유용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교직 진출을 꿈꾸며 사범대에 진학한 학생에게 임용시험 합격은 대학 진학과 함께 계획했던 목표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기 상이한 전공 교과에서,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했던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한 것이지만 매일 연습하는 긴장, 불안과 분투하며 긍정적 비전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생활한 끝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기집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재학생이 효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기집의 도움을 받은 많은 학생이 ‘2027 교사 임용 합격 노하우’를 작성하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2026년 임용시험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2027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합격 선배들이 전하는
**교사임용
합 2026 격
노 하 우**

초수 합격은 누구나 할 수 있다! • 가정교육과 구지인
노베이스로 시작했지만 1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 물리교육과 서지원



초수와 엽실론만큼 가까워지자 • 수학교육과 오치성
하루하루 주어진 복습을 해나간다는 것 • 생물교육과 문세린

불안을 지우는 기계적 반복 • 역사교육과 이윤성

천천히 쌓아 올린 시간 • 유아교육과 조경화

졸업시험 3트의 초수합격 • 윤리교육과 장범진

괜찮아, 잘 될 거야 • 음악교육과 이예령

꾸준히 하다보면, 합격하더라 • 지리교육과 김도환

지리 합격 후기 • 지리교육과 김윤재

매일 이게 맞나 싶겠지만 맞습니다 • 지리교육과 김현민

“합격이 제일 재밌음” • 지리교육과 정소희

잘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해서! • 지리교육과 정혜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붙는다 • 지리교육과 주희정

임용 초수 합격 유 캔 두잇! • 체육교육과 문건후

초수합격 후기 • 화학교육과 김동은

미흡하지만 정리해본 임용 준비 과정 • 유아특수교육전공 임지원

너도 할 수 있어, 초수 합격 • 중등특수교육전공 나예주

임용고시, 초수에 끝내자 • 초등특수교육전공 박민찬



하루하루 주어진 복습을 해나간다는 것

안녕하세요, 이번 광주 중등 임용고시 생물에 초수로 합격하게 된 문세린입니다. 방대한 공부량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을 후배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공부했던 방법과 마음가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공부해야 할 범위는 넓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불안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방향을 잡아가며 점점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험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며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자주 가졌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힘든 순간에는 잠시 쉬어가며 마음을 다잡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준비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초수 합격을 목표로 잡았던 이유와 멘탈 관리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수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현직 교사인 선배님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교단에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험 생활을 앞두고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며 동기를 많이 얻었는데, 특히 초수로 합격해 졸업하자마자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보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나도 꼭 초수로 합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야지'라는 마음이 컸고, 자연스럽게 초수 합격이 제 수험 생활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격적인 임용 공부를 시작하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만 공부하고 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4학년이 되면서 주변에서 쏟아지는 '이제 공부해야지'라는 압박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차피 해야 할 임용 공부라면,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낫다'라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한, 혼자 고립되어 공부하기보다 과 정독실에서 동기들의

얼굴을 보며 공부했던 게 큰 도움이 되었고, 힘들 때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초수로 합격했을 때 기뻐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상상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공부를 계속하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3학년 학부 생활과 4학년 시기별 공부 흐름

저는 임용고시가 4학년 1년만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닌, 저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쌓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학년: 1학년 때는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등 기본적인 교직 과목을 수강하며 교직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전공 역시 물화생지 기본 내용을 학습하며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강하는 전공이 대부분 교양 과목이다 보니 교직 과목 학점을 채기는 데 시간을 더 쏟았습니다. 1학년 때는 제대로 각 잡고 공부하기보다는, 대학 생활을 충분히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하며 교직 자격 조건을 미리 채웠습니다. 1학년 때는 전공 부담이 적으므로 교직을 2~3개 정도 미리 듣고, 교육봉사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같은 자격 조건도 채워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 2학년: 2학년부터는 본격적인 생물 전공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생물교육론 수업을 들으며 생물 교과서를 분석해 보고, 교과서에 있는 실험이나 모의 활동 등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2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전공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때 공부해 둔 내용이 나중에 4학년 때 전공 공부를 할 때 기억나면서 개념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3학년: 3학년 때는 교육실습을 나가면서 수업 실연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동기들 앞에서 직접 실연해보고 피드백을 받으며 부족한 점을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업 전문성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학교 현장에 나가 수업을 해보며 교실 분위기나 실험 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실제 학생들의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학년 때 역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두어야 나중에 임용 공부할 때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수업 실연 피드백이 나중에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본격적인 임용 준비, 4학년 시기별 공부 흐름

구분	교육학	생물내용학	생물교육론 및 수업실연	비고
3학년 겨울방학	3월 심화 이론 개강 전, 유튜브 무료 강의로 흐름 파악	2월부터 전공 인강 수강 하며 이론 공부 시작	-	
4학년 1학기	심화 이론 수강, 개념 정리 노트 제작 및 복습	전공 인강 수강 및 개념 복습	생교론 심화 이론 및 교과서 탐구 분석 강의 수강	대학 수업과 병행. 수업 없을 때 틈틈이 공부
4학년 여름방학	영역별 문제 풀면서 논술 작성 연습	문제풀이 인강 수강, 기출 분석 및 오답 정리	생교론 기출 분석 및 오답 정리	
4학년 2학기	교육학 기출 모의고사 풀이 및 논술 작성 연습	개념 반복 복습, 핵심 이론 강의 수강하며 중요 개념 재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 및 암기	반복적으로 개념 복습 하며 암기하려고 노력
D-100	실전 모의고사 인강 수강 및 풀이	실전 및 파이널 모의고사 수강 및 풀이	생물교육론 모의고사 수강 및 풀이	스트레스 관리에 더 노력
1차시험 당일	시험 당일에 불 요약본 훑기	암기하기 어려웠던 내용 위주로 훑기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요소 암기	
1차시험 이후	-	-	교과서 탐구 분석 시작, 수업 실연 및 면접 연습, 만능틀 암기	1차 시험 후 일주일 정도 쉬고 바로 2차 공부 시작
2차시험 당일			그동안 구상했던 지도 안과 만능틀, 심층 면접 예상 답변 암기	

 과목별 학습 방향 (교육학, 생물교육론, 생물내용학)

교육학은 암기가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개념을 눈에 익히고 외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본 이론은 건너뛰고 바로 심화 이론부터 수강했는데, 대학 생활을 하며 교직을 성실히 들었다면 익숙한 개념이 많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학은 유명한 강사님들이 많으니 맛보기 강의를 들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이선화 강사님의 강의로 이론을 익히고 설보연 강사님의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강사마다 모형 단계 명칭 등이 미세하게 달라 암기할 때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론부터 모의고사까지 강사 한 명의 커리큘럼

을 꼭 따라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물교육론은 내용학이나 교육학에 비해 양은 적지만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물교육론도 심화 이론부터 수강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주로 김태이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과서 탐구 분석 강의도 들으면 나중에 2차 준비할 때 교과서 분석하기가 좀 더 편하긴 하지만, 듣지 않았다고 해서 2차 준비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제대로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과 목표, 생명과학 과목별 지식·이해, 내용 요소 등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각 성취기준과 적용 시 고려사항도 꼼꼼히 숙지해야 합니다.

생물내용학은 양이 워낙 방대해서 공부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외울 것도 많기 때문에, 임용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한 번 훑는 데만 3~4개월이 소요되므로 미리미리 공부를 시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강의를 들을 때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물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회독하다 헛갈리는 부분은 핵심 이론 강의를 통해 복습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에게 잘 맞았던 복습 방법과 학습 습관

교육학, 생물교육론, 생물내용학 모두 인강(인터넷 강의)을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가끔 인강을 듣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행히 저는 인강을 듣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어야 한다면, 인강을 듣는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의 경우, 중요한 개념들을 골라 보기 편하게 단권화했지만, 전공은 따로 단권화 작업을 하지 않는 대신, 인강 필기 노트를 서브노트처럼 활용했습니다. 전공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보며 외워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권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교육학이나 생물교육론 정도만 정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한 복습 방법은 빈칸을 만들어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노트 앱에 교육학 개념 노트나 전공 필기 노트를 불러온 뒤, 스티커 기능으로 주요 키워드를 가려놓고 그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보는 식으로 암기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백지 인출이나 키워드 인출이 기억에 훨씬 오래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백지 인출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키워드 중심으로 인출 공부를 하시면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핵심 개념을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인출 학습법을 복습 주기와 세트로 묶어 활용했습니다. 망각곡선을 토대로, 당일 배운 내용을 다음 날 바로 복습하고, 이후 3일 뒤, 1주일 뒤, 2주일 뒤, 한 달 뒤에 다시 복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주기에 맞춰 반복하면 억지로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개념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오래 남게 됩니다. 이 복습 주기와 학습법을 함께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스터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기도 했고,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지 못한다는 점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꾸준히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잠깐 백지 인출 스터디를 해보기도 했지만, 암기에는 도움이 되어도 개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동기부여를 얻는 것은 좋지만, 혹시 시간이 낭비된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터디를 필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르는 게 생겼을 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친구를 주변에 두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 준비 (수업 실연 및 심층 면접)

1차 시험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2차 시험 준비에 돌입해야 합니다. 특히 2차 스터디는 1차 시험을 치르기 전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미리 구성해 두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1차 시험이 끝난 후에 스터디를 구하려고 하면 이미 다른 친구들과 약속이 되어 있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아 곤란할 수 있거든요. 1차 시험이 끝난 직후 일주일 정도는 휴식을 취하면서 교과서 탐구 분석 틀을 짜고, 스터디원들과 출판사별 분량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교과서 탐구를 분석하며 해당 파트의 수업 실연과 심층 면접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2차 준비를 위해 따로 강의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면접의 경우 ‘면접레시피’라는 책을 활용해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에 직접 소리 내어 답해보면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적용할 수 있는 저만의 ‘만능 틀’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업 실연 스터디 인원은 2명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준비는 본인이 직접 실연해 보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3명 이상이 되면 개인이 온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에 3~4개의 수업 실연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입에 잘 붙는 ‘수업 틀’을 찾게 됩니다. 이 틀을 빼대 삼아 거듭 연습하시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무리 없이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엄청나게 떨리긴 하더라고요.

2차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고르라면 ‘나의 수업을 피드백해주는 스터디원’을 고를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함께 스터디를 진행했던 친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피드백을 해준 덕분에, 제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스터디원끼리 서로의 수업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주고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태도가 실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 참고했던 인강과 교재

구분	교육학	생물내용학	생물교육론	심층면접
개론서	설보연 교육학 강의 교재	강치욱 생물내용학 강의 교재	김태이 과학교육론 강의 교재	면접레시피
인강	설보연 이론 강의, 실전 모의고사 강의	강치욱 생물내용학 이론, 문제풀이, 핵심이론, 모의고사 강의	김태이 심화 이론, 문제풀이 강의	

(참고: 교육학의 경우, 저는 처음에 다른 강사님의 이론을 듣다가 모의고사 때 설보연 강사님으로 넘어오며 용어 차이에 대한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 표에 적힌 것처럼 처음부터 한 강사님의 커리큘럼으로 꼭 따라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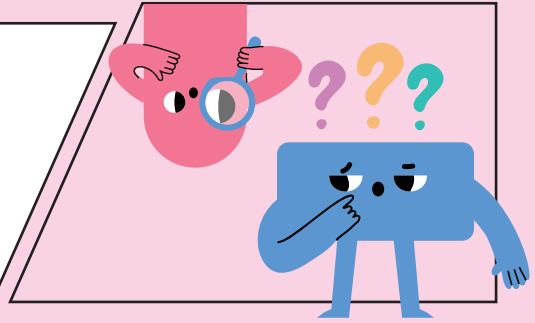
수기를 마치며 후배님들께

제 글을 꼭 읽으시면서 혹시 막막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 예전에 여러 사람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건가?’, ‘내가 과연 저 사람들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주눅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하루하루 해야 할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후배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임용 시험 전까지 최대한 많은 걸 다 공부하려고 계획을 짜면서 스트레스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복습만 꾸준히 해도 충분합니다. 저 또한 죽을 만큼 열심히 한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외롭고 우울하고 힘든 날이 많을 텐데, 그럴 땐 학교 캠퍼스 산책도 하고 가끔은 조용한 카페에도 가면서 기분 전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물교육과 후배님들 항상 파이팅하세요!

초수 합격자에게 묻는다, Q&A



Q 공부를 시작한 시기, 순서: 교육학/교과교육/교육과정... 과목마다 분량,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라 언제부터 or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요.

A 생물내용학이 양이 워낙 방대해서 개념을 한 번 훑는 데만 3~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해요. 가급적 3학년 여름방학이나, 늦어도 3학년 기말고사 끝나고부터는 전공 이론 강의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학은 4학년 1~2월쯤에 유튜브 무료 강의로 흐름을 잡고, 4학년 1학기부터 심화 이론 인강을 듣기 시작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교육학 인강과 과목별 전공 인강 추천 강사는?

A 교육학 - 설보연 강사님

우선 맛보기 강의를 들어본 후 한 명의 커리큘럼을 쫓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 경험상 교육학은 '이론 강의'와 하반기 '모의고사 강의' 정도만 수강해도 충분했습니다. 5~8월에 진행되는 유형별 문제 풀이는 굳이 인강을 듣기보다, 혼자 교재를 사서 직접 답안을 작성해보며 논술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생물교육론 - 김태이 강사님

'심화 이론'과 '문제 풀이'가 하나로 묶여 있는 패키지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물내용학 - 강치욱 강사님

저는 핵심이론 강의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론, 문제 풀이, 모의고사까지 모두 포함된 1년 패키지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수험생활 멘탈 관리 방법?

A 저도 수험 생활 내내 그만두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도 많이 냈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매주 일요일)는 무조건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물론 일요일에도 그날 해야 할 필수 복습 분량은 있기 때문에, 딱 복습만 끝내놓고 다른 추가 공부는 일절 하지 않은 채 온전히 쉬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임용 공부는 장기전이므로, 무작정 달리기만 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잘 쉬면서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시험장에서 도저히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비워둔다 or 뭐라도 적는다.

A 무조건 뭐라도 적고 나오셔야 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복습하며 머릿속에 쌓아둔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장 완벽한 정답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문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키워드를 어떻게든 엮어서 적어보세요. 저 역시 시험 당일에 모르는 개념도 있었고, 어떤 답을 써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고민한 끝에 적어낸 답이 실제 정답이어서 무척 기뻐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예 비워두면 가능성이 0%지만, 그동안 배운 것을 총동원해서 뭐라도 쓰면 정답이 될 확률이 생깁니다. 시험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빈칸 없이 채우고 오시길 바랍니다.

Q 전체적인 임용공부 방법은 어떻게 했는가? (서브노트+기출분석/단권화/스터디 등)

A 빈칸 키워드 인출과 누적 복습을 핵심 학습법으로 삼았습니다. 노트 앱에 필기 노트를 불러와 스티커로 주요 키워드만 가리고 맞추는 식으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복습, 3일 뒤, 1주일 뒤, 2주일 뒤, 한 달 뒤 주기에 맞춰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Q 후배들(임고준비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

A 처음 임용 공부를 시작하면 방대한 양에 누구나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리부터 스트레스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꾸준히 공부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1년이 지났을 때 발전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매일매일 묵묵히 해나가는 스스로의 힘을 믿으세요.